

### 주 헌 절 / 임직 감사 예배

#### THE WORSHIP SERVICE OF BAPTISM OF THE LORD

주후 2021년 1월 10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347 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새 212)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76 번 취임식(Inauguration)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이성우 장로
----------------------------	--------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b>마가복음 (Mark) 10:42-52</b>	장경국 집사
-------------------------	-----------------------------	--------

설 교 Sermon	<b>“다시 만나는 교회 (9) – 섬김으로”</b> <b>(Gathering Together Again – By Serving)</b>	김일선 목사
------------	---	--------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	-----

찬 송 Hymn	285 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보오나” (새 228) 1, 2 절	다같이
----------	---------------------------------------	-----

주의 만찬 Communion	(홀어져 나누는 주의 만찬)	다같이
-----------------	-----------------	-----

찬 송 Hymn	285 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보오나” (새 228) 3, 4 절	다같이
----------	---------------------------------------	-----

안수 및 임직 Ordination/Installation	(안수/임직 순서지 참조)	다같이
---------------------------------	----------------	-----

봉 헌 Offerings	(찬양: 윤홍준 집사, 반주: 고혜정 집사)	다같이
---------------	--------------------------	-----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	----------------------------------	-----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인도자
-------------------------	-----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	-----

*찬 송 Hymn	524 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새 222)	다같이
-----------	------------------------------	-----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	--------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부르심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부응하지 못했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을 앞세웠으며,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주장하시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실한 주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엡 4:11-12, 골 3:17)

####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한글개역 **막 10:42-43**)

“Not so with you. Instead, whoever wants to become great among you must be your servant, and whoever wants to be first must be slave of all.” (NIV **Mark 10:42-43**)

####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10 (주일)	1/11 (월)	1/12 (화)	1/13 (수)	1/14 (목)	1/15 (금)	1/16 (토)
	창11	창12	창13	창14	창15	창16	창17
본문	마10	마11	마12	마13	마14	마15	마16
	스10	느1	느2	느3	느4	느5	느6
	행10	행11	행12	행13	행14	행15	행16

#### 수/요/ 성/경/공/부

수요 성경공부 (1/13 오후7:30)

#### 토/요/ 새/벽/기/도/회

“하나님 앞에 서면” (롬 128-32)

토요 새벽기도회 (1/16 오전6:30)

“내 하나님이며” (시 221-8, 22-31)

#### 지난 주일(1/3, 신년주일) 말씀

#### “다시 만나는 교회 (8) – 화평함으로” (약 3:13-18)

오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아무리)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갈망하며, 우리가 (아무리) ‘화평함’을 추구한다 해도, 우리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자리잡게 되면 지혜가 아닌 어리석음으로 치우치게 되고, 화평함이 아닌 분열과 갈등으로 치달게 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그릇된 이분법과 흑백논리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위로부터 난 지혜’를 온전히 구현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순수함과 성결을 지키면서, 화평함과 관용을 드러내고, 긍휼함과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1) 먼저, 우리는 화평으로 부지런히 심어야 하고(약3:18), 2) 그 다음으로, 우리는 선행과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드러내야 하며(약3:13), 3)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거짓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약3:17).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말씀인 마태복음 5장에서, “화평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마59)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7장에서,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고전7:15)고 말씀했으며, 또한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고... (또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후5:18-19)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우리는 단지 화평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오는 Peace-Maker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혜가 아닌, 하늘에 속한 지혜로, 화평함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설/교/ 메/모